

‘막힌 담’을 허무는 평화
Peace Breaking Down Every Wall
(이사야 Isaiah 11:1-9)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 하셨습니까? 요즘처럼 평화라는 단어가 소중한, 또 살갑게 느껴진 적이 없습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군사분계선 앞에서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남북을 넘나들며, 아직도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한반도에 평화의 서곡을 울립니다. 그토록 가까운 지척의 거리에, 낮은 문턱만 넘어서면 되는데, 만감이 교차합니다. 비록 두고 온 고국 땅에는 평화의 봄 기운이 감돌고 있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아직도 싸늘한 전쟁의 기운이 맴돌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또 다른 테러의 소식들이 들립니다. 사람들은 정말 작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다 씁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 더 센 무기가 필요합니다. 테러에 맞서려고 더 큰 협박도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평화는 힘써 싸워야만 지킬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Did you have a peaceful week in God's grace? The word "peace" has never felt so precious or familiar as of late. The leaders of the North and South Korea met in front of the demilitarized zone (DMZ) and pleasantly greeted each other. On the Korean peninsula where two Korea still point guns at each other, the overture of peace plays. It is such a short distance with a low barrier but thinking of current situation make thousand thoughts cross my minds. Although there is air of political spring in our homeland, the air of war persists all over the world. When we wake up in the morning, we are faced with another news of terrorism. People work so hard to keep the small peace. We need stronger weapon to prevent wars, and often make another threat to confront terrorism... From sometime in the past we are filled with preconception that we have to fight to keep the peace.

마음의 평화는 또 어떻습니까? 하루에 열 두 번씩 마음 속에 전쟁판이 벌어집니다. 사소한 일에도 우리 마음은 급 물살을 탑니다. 애써 얻은 평화를 쉽게 잃어 버리지요. '이번 만은 그러지 말아야지' 굳게 다짐해도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너무 쉽게, 너무 빨리 평화를 내줍니다. 평화는 열심히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명상이나 마음 수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평화는 싸워 이겨서, 전쟁 끝에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과 평화'라는 제목의 책도 있지요. 마치 피비린내 나는 전쟁만 끝나면 해맑은 평화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How about peace of mind? Twelve times a day, our hearts turn into battlefields. Even for the tiniest thing, our hearts take a nosedive. We easily lose our peace of mind. We often say, "Not this time," but it's no use. We give away peace too easily, too often, and too soon. Peace cannot be earned through hard work. Peace cannot be earned through meditation or mind training. Moreover, peace cannot be earned through fighting. Nor it is not won through

winning at a battle. There is a book titled 'War and Peace'. When the bloody war is over, it may seem like peace will come.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 평화는 붙잡아 둘 수 없는, 아득히 먼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루 중에 몇 시간이나 마음의 평화를 누리십니까? 미움/시기/질투/분쟁, 과연 내 맘 속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잠시 잠깐 평온해 보여도, 이 평화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 같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평화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입니다.

But what about reality? It is a story of a faraway country with endless wars where peace cannot be sustained. Think about your day. How many hours a day do you enjoy peace of mind? Hatred / envy / jealousy / conflict, indeed for how long are our hearts free of war? For a brief moment it may seem peaceful, is it not like the calm before the storm? actually How can we earn peace? Peace is not earned but filled.

오늘 본문은 어떻게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날로 더해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간절히 평화를 원해도, 평화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본문 말씀 좀 보세요. 이사야는 상상 속 유토피아에서나 가능한 절대 평화를 도화지 위에 그립니다. 사나운 맹수가 어린 양과 뛰놀니다. 모두가 함께 푸른 채소만 뜯어 먹습니다.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 피의 문화가 깨끗이 지워졌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어린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덤벼덤벼 손을 집어 넣습니다. 상식도 다 무너졌습니다. 평화는 울어도, 힘써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Today's scripture makes it clear how peace can be earned. The world wants peace, but the rumor of war goes on. What does this mean? No matter how desperately we want peace, we cannot earn easily. There is no peace within us. It's our confession that we cannot create peace. Look at the scripture. Isaiah provides an image of the absolute peace only possible in utopia. Wild beasts play with lambs. All creatures graze together on greens. The principle of "survival of the fittest", or the culture of blood has been clearly erased. That's not all. Young child put his or her hand into the viper's nest without fear of being bitten. Common sense has also been destroyed. Peace cannot be earned even if you cry or no matter how hard you work. Only God is our peace.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사야 11:9)
They will neither harm nor destroy on all my holy mountain,

for the earth will be filled with the knowledge of the Lord as the waters cover the sea. (Isaiah 11:9)

이 말씀 좀 잘 보세요. 저는 오늘 이 짧은 말씀을 정말로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평화를 누리려면 먼저 평화의 땅에, 평화의 나라에 들어 가셔야만 됩니다. 내가 잘나서, 아니면 무슨 자격이 있어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평화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의 시작입니다. 운전면허 보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이사하면 몇 달 안에 신고하고, 새 주소로 바꿔야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사하고 또 주소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퍼머넌트 어드레스, 영원한 주소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집에 살고, 생명이 다한 후에도 하나님 집에 살 겁니다.

Let's read the scripture closely. I really want to focus on this short passage today. To enjoy peace, you must first enter the Land of Peace, the Kingdom of Peace. It's not our ability or our right that qualifies us to have peace. Even though I am inadequate, we receive peace as a gift when we are in God's house. Entering God's house is the beginning of true peace. Look at your driver's license. It lists your home address. If you move, you have to report the change of address within few months and list the new address. While living in this world, we may constantly move and change addresses. But we Christians have a permanent address, or an eternal address. It is the God's Kingdom, or the house of God the Father. We live in the house of God when we breath our last breath as well as while in we live in this world.

하나님 집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종 노릇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 자녀가 된 후에도 제 버릇 남 못주고, 망나니 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안 바뀌지만, 우리 이름 앞에 거룩한 꼬리표가 하나 따라 다닙니다.

What is the meaning of entering God's house? It means becoming God's sons and daughters. This means that we, who used to be the slaves of this world, become God's children. Of course, we may live like a scumbag with old habits even after becoming God's children. Although we may not change overnight, a holy tag follows in front of our names.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누구, 거룩한 하나님의 딸 아무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십니다. 어떠세요? 왠지 뿌듯해 지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든지, 어떻게 부르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함께 크게 선포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딸 _____ 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_____ 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세요? 확신 하십니까?

Son of Holy God, Daughter of Holy God.

My beloved church members, the people next to you are the very sons and daughters of God. What do you think? Aren't you becoming proud somehow? There is one more important thing regardless how others think of us or call us. Let's make a big declaration.

I am God's daughter, _____. I am God's son, _____.

Do you believe in this? Are you convinced?

평화를 누리려면 먼저 하나님 집에 들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집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절대 평화가 충만한 곳입니다. 그저 하나님 집 안에만 머물러 있으시면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떻게 평화를 누리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양자가 됐다고 해서 금새 아버지 마음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We need to enter into God's house first in order to enjoy peace. God's house is a place full of absolute peace, governed by God. We just need to reside inside God's house. At the beginning, we surely do not know well how to enjoy peace because we cannot fully understand Father's hearts immediately after we become HIS stepsons and stepdaughters.

자,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은 신학 공부 많이 한다고 다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도 닦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알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자장 안에 들어가십시오. 자장 안에 들어가면 N 극과 S 극이 방향을 제대로 잡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삶에도 우선순위가 매겨지고, 잘 정렬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많이 느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게 됩니다.

Now, how can we know our God, the Father? Please abide in God's love.

We cannot know God fully by studying theology hard, by cultivating ourselves spiritually or by serving others faithfully. Please enter the enormous magnetic field of God's love. When entering into it, our directions are corrected properly by the North and South poles. When abiding in God's love, we will live a life well-prioritized and well-organized. When we feel God's love more and more, we get to know who God is properly.

아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딸,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습니다. 왕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공식적인 사역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거나, 가르치러 오신 게 아닙니다.

The Son of God came to this world in a human body. Jesus is called Messiah and Christ. These mean the same, He is the anointed one. Our Lord was anointed for God's sons and daughters like you and me. By anointing a King or a prophet, an official work is declared to start. But our Lord did not come to govern or teach us.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아픔을 친히 감당하시고, 대신 죽어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감당하십니다.
주님이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짓밟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입니다.
주님이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상처를 입음으로 고침을 받았습시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매 맞는 분이십니다. 우리 때문에 늘 상처 당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하지만 그분의 사랑 안에 늘 매여 있으십시오. 하나님 집에
거하십시오. 지금은 몰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만큼,
하나님을 점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하며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Our Lord came to this world in order to bear our pain personally and die for us. Our Lord carries our disease and bears our pain for us. Our Lord is hurt due to our fault and trampled due to our sin. We received peace by our Lord being beaten and were healed by our Lord being wounded. Who is our God? Our God is the One beaten instead us and for us. The One always wounded because of us. We may not know God's love completely, but please be bound to God's love always. Please reside in God's house. Although we do not know it today, the day will definitely come when we understand it. The more we feel it, the more we learn about Him. While we miss the day to come although we don't know when, we are living in Father's house.

자, 이제 물 얘기 좀 하렵니다. 몇 년 전에 물난리를 툭툭히 겪은 적이 있습니다. 새벽 3 시에 수도관이 터져서 밤새 고생 했습니다.가느다란 수도관에서 어찌나 빨리, 얼마나 많은 물이 솟구쳐 오르는지... 성경 말씀을 온 몸으로 제대로 체험 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집안 바닥이 금새 물바다가 됐습니다. 결국 한 밤중에 손전등 들고 집 안팎을 다 뒤져서 메인 파이프를 잠궜야 했습니다.

Now, let me talk about water. I suffered a flood damage several years ago. I suffered throughout a night when a water pipe burst at 3 in the morning. How fast and how much water gushing from the thin water pipe! I experienced words in the Bible with my whole body - as the waters cover the sea, my whole house floor was flooded fast. I finally had to close the main water valve after searching for it inside and outside my house while holding a flashlight in the middle of a night.

예상치 못했던 물난리를 통해서 3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평화를 누리려면 첫째, 막힌 부분을 반드시 뚫어야 됩니다.
바쁘다고, 귀찮다고, 차일피일 미루면, 문제는 점점 더 눈덩이처럼 커져만 갑니다. 음식분쇄기가 막혔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 식기 세척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어딘가 막히면, 언젠가는 터지게 돼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막힌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님과 담장 쌓고 사십니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사이에 막힌 데가 있습니까?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반드시 막힌 담을 오늘 허무세요.

I got three lessons from the unexpected flood damage. First, we need to clear the clogged passage in order to enjoy peace. If we keep delaying to later days with excuses of being busy or annoyed, the problem becomes bigger like a rolling snowball. When a garbage disposal is clogged, a unrelated dish washer does not work. I mean, we should not bury our heads in the sand. If clogged somewhere, it will eventually burst. My beloved church members, do you have any clogged issues with God? Do you live your lives isolated from Holy Spirit? Do you have any clogged parts with your husband, wife, parents, children, brothers or sisters? Don't let it just pass by. Please clear the clogged passage today.

천국 달력하고, 지옥 달력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한 장 한 장에 몇 월 몇일만 써 있대요. 딱 한가지 틀린 게 있습니다. 매 장마다 맨 밑에 조금만 글씨로 이렇게 써있습니다. 천국 달력에는 오늘 오늘, 지옥 달력에는 내일 내일이라고 써있습니다. 막힌 담이 하나님이지던지, 아니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분이든지 오늘 해결하세요. 오늘을 사는 분은 천국을 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사시는 거예요. 자꾸 내일로 미루는 분은 지옥에서 사시는 겁니다. 절대로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The calendar in heaven is said to be the same as one in hell. Only month and date are written on each page. At the bottom of each page on the calendar in heaven, it is written as 'Today and Today' in a small character while on the calendar in hell, it is written as 'Tomorrow and Tomorrow.' Whether the wall is God or your neighbors, unravel the knots today. One who lives today is one who lives in heaven. It is to live in God's house. One who puts off till tomorrow is to live in hell. He or she will never enjoy peace.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말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막힌 담 허시기로 결단 하셨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문제를 오늘 해결하세요.
미움/시기/질투/분쟁, 마음 속의 막힌 담도 바로 지금 허물어 버리세요.

He is our peace Who has broken down every wall/

He is our peace, He is our peace

Cast all your cares on Him/He is our peace He is our peace

Are you decided to break down the wall? I appreciate it then. Let's solve the problem only you and God know today. Break down hatred, envy, jealousy, conflict and the wall in our mind right now.

평화를 맘껏 누리려면, 둘째 망가진 것을 새 것으로 갈아 끼워야 됩니다.

집에 물 사태가 났을 때, 처음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추수감사절 새벽 3시에 플러머를 부를 수도 없고, 도저히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습니다. 침착하게 살펴보니 작은 밸브가 망가진 걸 알게 됐습니다. 아주 작은 부품이지만, 갈기 전에는 집안 전체의 물을 차단할 수 밖에 없었지요.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고 방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중요한 존재입니다. 꼭 있어야 되는 분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중에 한 분이 힘들고 지치면 모두가 다 아픕니다.

Second, you need to replace broken parts with new ones if you want to fully enjoy peace. When my home was flooded at 3 am on the Thanksgiving Day, I was so worried at first. I could neither call a plumber early in the morning on a Thanksgiving Day nor ask for help from anyone around me. But when I searched for the leaked area closely, I found out one small valve was broken. It was a small part, but it caused my house to get flooded. I had to cut off waterline until I replaced it. The same is true to home or church. Please don't think 'It's only me. It's okay.' Each every one of you is so important and necessary. It doesn't seem but we all suffer together if any one of us is tired and going through hard time.

예전에 신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특이하게 성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학기를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속회처럼 몇 명씩 소그룹을 만듭니다. 그리고 학기말에 개인 별로 성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룹이 똑같은 성적을 받습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A 받는게 아닙니다. 내가 못했다고 나만 F 받는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운명 공동체입니다. 고장난 지체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 지체에게 새로운 부품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 내가, 나만 사서 고생해야 되냐고 말하지 마세요.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평화의 집, 하나님 집에서는 대신 당하는 겁니다. 대신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대신 상처 받고, 대신 찢림을 당합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처럼 대신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도 마냥 행복하고, 평화로운 곳이 아버지 집입니다.

In one class during a seminary I had a grade in a unique way. As the semester gets started, small groups of students are formed at the class. At the end of the semester, class grades were given not by individual performance but by group's. So, everyone in a group received the same grade. Any individual with outstanding performance in a group doesn't necessarily score A. On the other hand, any with poor performance in a group doesn't necessarily score F. The same is true to church. You and I are all riding in a same boat. We are a group sharing the same destiny. If any part is broken, you and I should become a replacement part. Please don't say "Why me?" Ignorance of God's love leads to such question. Sacrifice is a virtue in the house of peace or God. We get insulted or humiliated for someone else. We get hurt or stung for someone else. Eventually we get killed like Jesus Christ. Nevertheless, we are happy and are in peace in God's house.

완전한 평화를 누리려면, 셋째 끊어진 곳을 찾아서 다시 연결해 주어야 됩니다.

막힌 곳을 뚫었다고, 물새는 것을 잠시 막았다고, 진정한 평화가 온 것이 아닙니다. 끊어졌던 곳이 이어져야 됩니다. 잘려진 곳을 이제 다시 연결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 지셨습니까? 형제와 자매 사이가 단절됐습니까?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천국 달력으로 사세요.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끊겼는지 잘 살펴 보세요.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가 되세요.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오늘 사랑의 띠로 다시 온전하게 묶여지길 기도합니다.

Third, we need to restore the broken connections to enjoy complete peace. Real peace may not be earned by temporarily opening up the blocked passage or fixing leakage. We ought to connect the broken parts together. We ought to connect the truncated parts together. Are you away from God's love? Do you have broken relationship with your siblings? It is not

tomorrow. It is today. I strongly urge you to live by the calendar of heaven. I also urge you to look into where and when the broken relationship occurred. I hope we should love not by word and tongue and should become one piece by action and truthfulness. I pray that our family and our community are fully tied as one piece again with ties of love today.

하나님의 거룩한 산 어디에도 그들을 해치는 것이나 다치게 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 땅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 찰 것이다.

“They will neither harm nor destroy on all my holy mountain, for the earth will be filled with the knowledge of the Lord as the waters cover the sea.” (Isaiah 11:9)

우리 안에 평화가 없음을 기억하세요. 평화는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것,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세요. 아버지 집 밖에서는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평화를 맘껏 누리세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 심령 속에 평화가 솟구쳐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Please remember no peace is within us. Peace is not earned at the cost of victory at war, but it is what God gives or fills. No matter what others say, you are the holy children of God. Come to God’s house. You can’t find peace outside of it. But enjoy peace as much as you can in it. I pray that peace is overflowing in our spirit as water fills the ocean.